

2021년 노동시장 평가와 2022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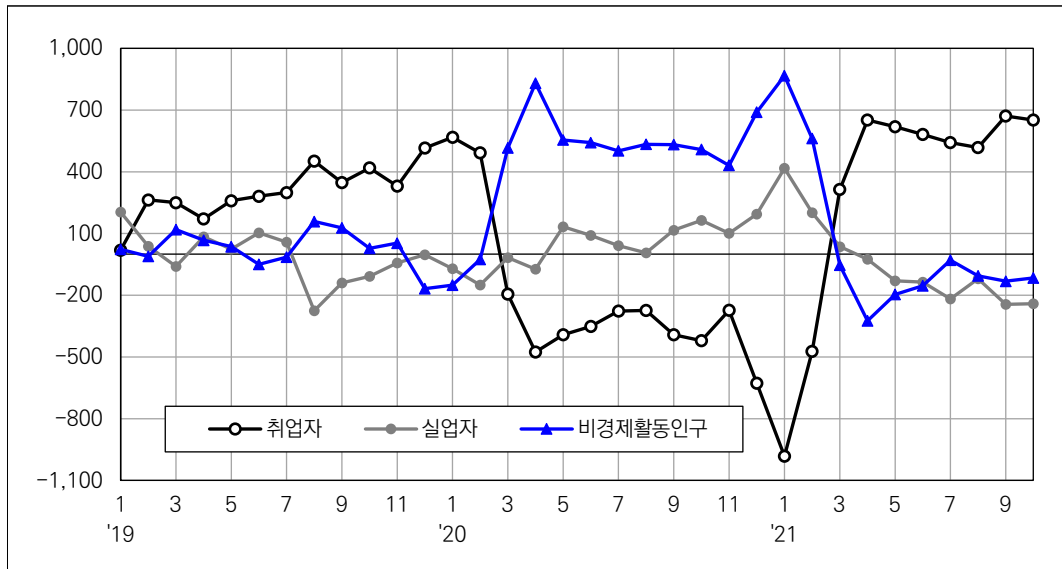
동향분석실

I. 2021년 노동시장 개관

2021년은 양적인 측면에서 고용의 완전한 회복세가 나타난 시기였다. 2분기 이후 지난해 동분기 감소분을 약 20만 명가량 상회하는 취업자 증가가 나타났고,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도 서서히 감소하면서 노동시장이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다. 2021년 3분기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약 58만 명 증가했고 1~10월 평균으로 약 31만 명 늘었다. 고용률 역시 1~10월 평균 0.3%p 증가했으며, 실업률도 0.2%p 떨어졌다.

[그림 1]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계절조정 전월대비 수치들을 보아도 노동시장 회복 징후를 확인할 수 있다. 취업자는 5월 이후 증가폭은 줄었으나 소폭이나마 증가 추세는 유지하고 있다. 전월대비 고용률 증가와 실업률 감소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양적 측면에서의 고용 회복세는 다양한 지표에서 확인된다고 볼 수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비대면서비스업 고용 증가가 눈에 띈다. 공공일자리 관련 직접일자리 사업이 포함된 사회서비스업 역시 고용이 크게 증가했다. 건설업은 업황 회복에 따라 고용도 증가했으며, 제조업은 추세적 하락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2020년 대면서비스업 고용 감소의 기저로 2021년 상반기에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대면서비스업 고용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교육서비스업 이외에는 유의미한 고용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서비스업 전체로 보았을 때 기업경기실사지수,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증가하는 등 2020년보다는 업황 및 고용이 나은 상황이다.

전체적인 고용지표는 완전한 회복세를 그리고 있지만, 세부적 고용 상황은 연령별,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등 부문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에 제II장에서는 부문별 고용 상황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본다.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변화를 연령별,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로 구분하여 2021년 노동시장을 평가한다. 제III장에서는 앞서 제시된 노동시장 부문별 평가를 기반으로 2022년 고용을 전망한다.

〈표 1〉 주요 고용지표 증감 추이

(단위: 천명, %p)

	원계열					계절조정계열					
	1~10월		분기			월					
	2020	2021	2021. 1	2021. 2	2021. 3	5	6	7	8	9	10
취업자	-172	310	-380	618	577	101	18	20	48	55	18
실업자	24	-46	218	-97	-194	42	-24	-119	-136	55	51
비경황	434	32	458	-225	-89	-120	25	120	103	-90	-44
고용률	-0.8	0.3	-1.3	1.0	0.9	0.2	0.0	0.1	0.0	0.1	0.0
실업률	0.1	-0.2	0.8	-0.5	-0.8	0.1	-0.1	-0.4	-0.5	0.2	0.2
일시휴직	453	-368	-252	-669	-265	16	-4	23	-73	75	31

주: 일시휴직자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증감은 자체 추산 수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통계청, KOSIS.

II. 2021년 노동시장 부문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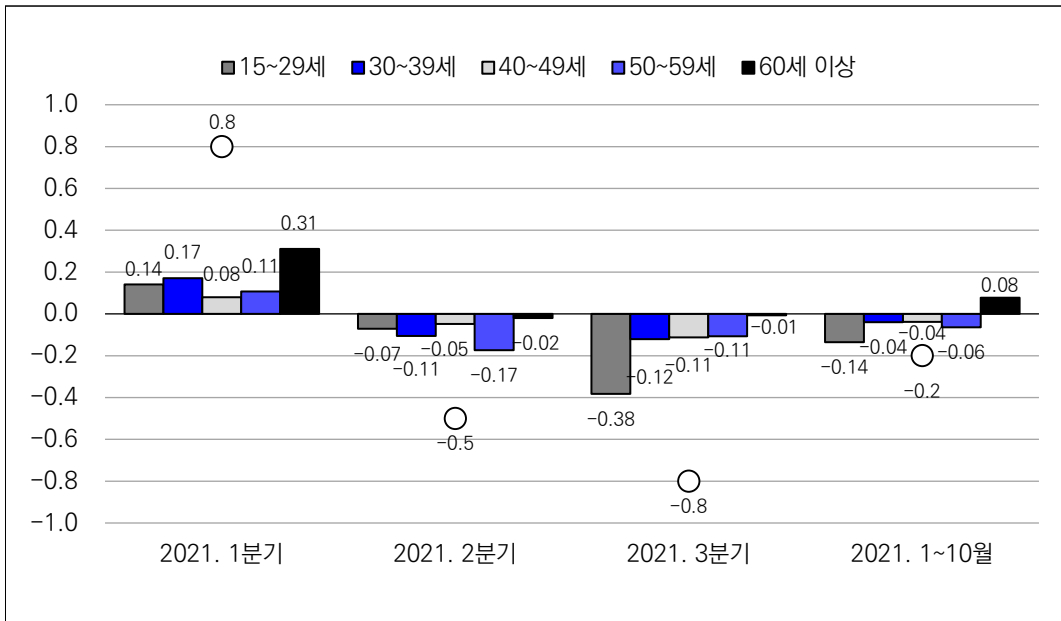
1. 지속적인 실업자 감소

코로나19 4차 유행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실업자 수도 4월 감소로 전환된 후 감소세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로, 가장 최근인 10월에는 24만 1천 명까지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계절조정 실업자 역시 3분기에 전분기대비 19만 3천 명 감소하였고 계절조정 실업률도 0.7%p 감소하는 등 어려운 방역 상황 속에서도 실업자 감소가 이어졌다.

실업률의 감소를 연령별로 보면 상반기 이후에는 청년층에서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그림 2 참조). 청년 실업자는 취업 무경험자에서의 감소와 더불어 도소매, 숙박음식 및 예술·스포츠 등 주로 전직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에서 감소하는 양상이었다. 반면 30세 이상에서는 2분기의 감소세가 이어지는 수준으로, 올 하반기의 실업자 감소는 주로 청년층의 회복이 견인하고 있다.

[그림 2] 실업률에서 연령대별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 증감

(단위: %p,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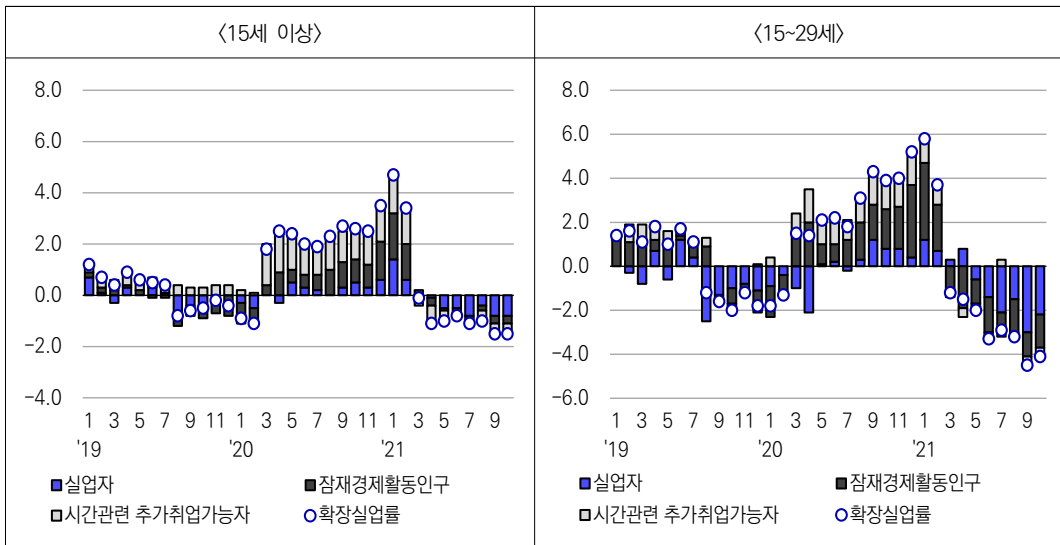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확장실업률에서도 고용 회복세는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전체 확장실업률은 10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실업자뿐만 아니라 잠재경제활동인구¹⁾ 및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의 감소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청년층은 3월부터 나타난 확장실업률의 감소가 10월까지 이어지고 그 감소세도 강화되고 있다. 그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실업자의 감소와 더불어 잠재경제활동인구 역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청년층 노동시장이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15세 이상 및 청년 고용보조지표(확장실업률)와 각 구성 요인의 변동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주: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잠재취업가능자 및 잠재구직자를 합한 것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세가 이어지던 실업자와는 다르게 2분기 이후 감소폭이 둔화되는 모습이었다(표 2 참조). 코로나19의 영향이 지배적이던 작년은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올해 2분기부터 고용 상황의 회복과 더불어 비경제활동인구도 감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3분기에는 8만 9천 명 감소에 그쳤고 계절조정계열로는 전분기대비 13만 5천 명 증가하며 경제활동참여 둔화가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는 3분기까지 증가가 이어지는 추세였지만, 반대로 청년층 및 주력 근로 연령층에서는 3분기에도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동시에 감소하는 모습으로, 고령층을 제외하면 경제활동참여의 둔화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1)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잠재구직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지만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았던 잠재취업가능자의 합이다.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감을 사유별로 보면 올 3분기의 감소폭 축소는 주로 연로 사유의 증가에 기인한다. 연로자는 2분기보다 증가폭이 더욱 확대되어 15만 3천 명 증가하였다. 반면 경기 활성화와 관련이 있는 취업준비의 증가폭은 소폭 확대되고, 쉬었음은 작년 3분기에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음에도 올해 3분기까지 감소하고 있다. 또한 구직단념자의 경우도 올 2분기 3만 5천 명 증가에서 3분기 5천 명 감소로 전환하여 큰 폭의 변화는 아니지만 추세적 감소세는 이어지는 등 세부 사유별로 보면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모습도 확인되었다.

〈표 2〉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20					2021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10월	1분기	2분기	3분기	1~10월
전 체	113	643	523	543	434	458	-225	-89	32
육아·가사	-77	245	256	246	151	232	-113	-92	-3
통학	-68	-56	-87	-34	-68	-96	-220	-181	-169
취업준비	-9	64	68	50	42	64	54	69	61
연로	-10	56	44	55	32	77	95	153	115
쉬었음	251	350	268	260	285	222	-30	-41	42
기타	26	-16	-26	-34	-9	-40	-12	3	-15
구직단념자	-23	62	102	149	54	184	35	-5	60

주: 1) 통학은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및 진학준비 사유를 포함함.

2) 취업준비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및 취업준비 사유를 포함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일시휴직자는 코로나19 4차 확산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 26만 5천 명 감소하여 작년 기저분 정도의 변동이 나타났다. 작년 코로나19 3차 확산을 돌아보면 3차 확진자 규모가 1차나 2차 때 보다 훨씬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일시휴직자의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4차 확산에서도 재확인되어 코로나19의 확산이 일시휴직자의 증가로 이어지는 관계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판단된다.

2. 청년층과 고령층 위주의 고용 회복

연령별로는 청년층(15~29세)과 고령층(60세 이상)에서 고용의 회복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청년층은 2020년 취업자 감소를 감안하면 2021년 10월까지의 회복 정도가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연령대와는 다르게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증가했다. 1분기 이후

약 18만 명에 가깝게 취업자가 증가했으며, 고용률 증가, 실업자 감소도 동시에 관찰된다. 고령층은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취업자 증가폭도 커질 수밖에 없다. 중장년층(30~50대)과는 달리 코로나19 영향하에서도 고용이 오히려 증가했으며, 2019년부터 비슷한 수준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표 3〉 연령별 주요 고용지표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연도		1~10월 평균			분기		
		2019	2020	2019	2020	2021	2021. 1분기	2021. 2분기	2021. 3분기
15~29세	인구	-88	-149	-89	-145	-138	-137	-133	-142
	취업자	41	-183	37	-165	94	-101	177	180
	실업률	0.8	-1.3	-0.5	-0.1	-1.0	1.0	-0.6	-2.8
	고용률	-0.6	0.1	0.8	-1.1	1.7	-0.5	2.6	2.8
30대	인구	-105	-145	-103	-143	-147	-150	-150	-143
	취업자	-53	-165	-61	-155	-121	-229	-93	-73
	실업률	0.3	-0.7	-0.1	0.0	-0.1	1.0	-0.4	-0.6
	고용률	-0.1	0.2	0.2	-0.6	-0.2	-1.7	0.2	0.5
40대	인구	-137	-67	-143	-67	-71	-68	-75	-72
	취업자	-162	-158	-164	-158	-41	-156	0	13
	실업률	-0.6	-1.3	-0.2	0.2	-0.1	0.4	-0.2	-0.5
	고용률	-0.2	0.2	-0.6	-1.3	0.2	-1.3	0.7	0.8
50대	인구	99	12	105	16	-8	-10	-15	-4
	취업자	98	-88	101	-83	42	-101	96	103
	실업률	0.2	-1.1	0.0	0.4	-0.3	0.4	-0.7	-0.4
	고용률	0.0	0.4	0.3	-1.1	0.6	-1.1	1.3	1.3
60세 이상	인구	553	631	547	626	659	661	669	654
	취업자	377	375	363	388	334	201	434	339
	실업률	1.4	0.9	0.2	0.2	0.0	0.7	-0.4	-0.2
	고용률	0.3	0.2	1.3	1.1	0.4	-0.7	1.2	0.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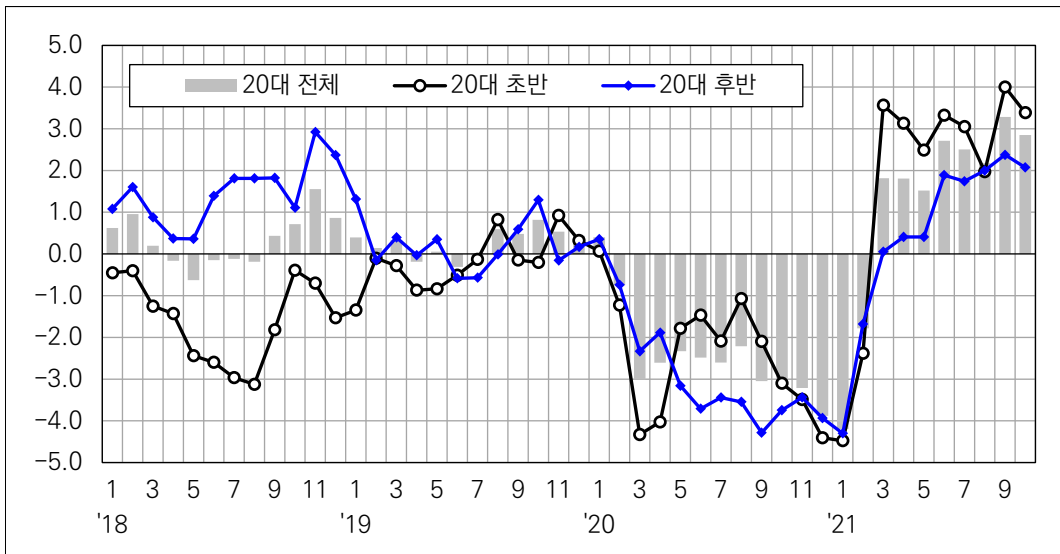
30~40대는 이전부터 인구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 역시 인구 감소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했다. 다만, 1분기에 비해 2, 3분기 들어 취업자 감소폭을 줄여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고용률도 2분기 연속 회복세를 보였다. 50대 고용은 2분기 이후 반등하여 3분기

에도 긍정적인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연령별 고용 상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청년층은 고용률 증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드러졌다. 20대 초반(20~24세) 인구는 감소하고 20대 후반(25~29세) 인구는 증가 중이기 때문에 인구변화의 영향을 받는 취업자 변화보다는 고용률 추이를 기준으로 청년 세부 연령대별 고용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20대 후반 고용률 회복에 비해 20대 초반 고용률 회복 속도가 더 빨랐고 그 폭도 크게 나타났다. 20대 초반 고용률 증가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 고용률 증가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은 정보통신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위주로 고용 회복이 나타난 반면, 남성은 숙박음식, 예술·스포츠·여가 등 대면서비스업 위주로 고용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여성의 정보통신업 취업자 증가는 20대 후반 연령대에 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그림 4] 20대 연령별 고용률 증감 추이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30대 역시 인구가 약 15만 명 감소하고 있다. 인구 감소폭에 비해 상반기 이후 취업자 감소폭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고용률 역시 4월 이후 증가로 전환했다. 성별로는 여성은 30대 초반에서, 남성은 30대 후반에서 고용률 증가가 더 컸으며 전체적인 고용률 증가폭은 여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남성은 30대 초반에서 비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했으나 30대 후반 연령대에서 제조업과 도소매업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여성은 30대 초반 연령대에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30~40대 취업자 변화를 성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코로나19가 산업에 미친 충격이 성별로 취업자 증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대면서비스업 종사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은 해당 산업의 고용이 크게 감소한 반면, 남성은 반대로 비대면서비스업인 운수창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고용이 증가했다. 대면서비스업에 집중되고 있는 고용 침체가 30~40대 여성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추세적 감소를 보이는 제조업, 코로나19 영향 이전에도 꾸준한 감소를 보이던 도소매업 고용은 성별과 관계없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

〈표 4〉 산업별·성별 중장년층(30~40대)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30~40대 남성			30~40대 여성		
	2021. 1분기	2021. 2분기	2021. 3분기	2021. 1분기	2021. 2분기	2021. 3분기
전 체	-184	-65	-41	-197	-30	-20
농림어업	-4	-8	-5	-8	-9	-9
제조업	-31	-23	-42	-1	-8	-38
건설업	-31	-10	-4	6	14	17
도소매업	-47	-71	-75	-35	-47	-49
운수창고업	11	54	62	7	11	6
숙박음식업	-25	3	2	-48	-26	-17
정보통신업	6	-11	1	6	-5	3
금융보험업	-11	-18	-26	-22	-1	-4
부동산업	-23	-10	0	-10	6	6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	41	32	6	7	8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8	10	0	-8	-10	5
공공행정	24	18	28	2	4	-4
교육서비스	3	5	3	-55	-15	4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7	-5	11	1	49	59
예술·스포츠	-6	-1	-6	-4	6	-5
협회·개인서비스	-33	-34	-19	-37	-6	-6

자료: 통계청(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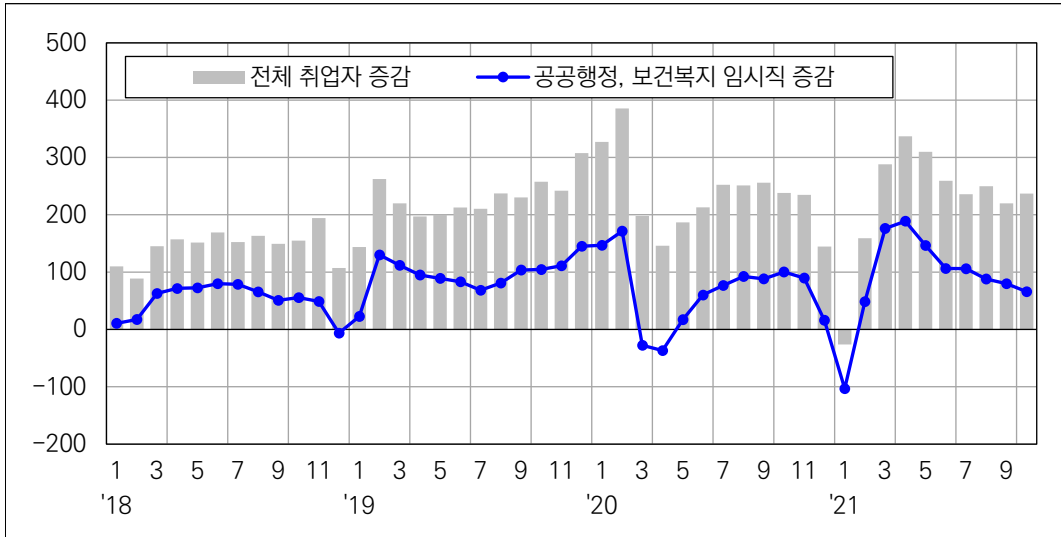
50대에서도 대면·내수 서비스업 고용이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취업자가 감소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 금융보험, 운수창고업 등 비대면서비스업 고용은 꾸준한 회복세를 보였다. 운수창고업을 제외하면 해당 산업의 여성고용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여성 50대 고용률 증가

가 남성 고용률 증가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난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여전히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하며 직접일자리 사업 진행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고령층은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된 2020년에도 고용률 증가와 실업률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다. 고령층 고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진행이 다소 더디게 진행되면서 2021년 초에는 취업자 증가 규모가 줄어들다가 2분기 이후 사업 재개로 인해 다시 전년 수준을 회복했다. 65세 이상 취업자 중 공공행정,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임시직 종사자가 1월 이후 크게 증가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고용의 증가가 계속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5] 65세 이상 전체 취업자 증감 및 공공행정,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임시직 종사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3. 상용직, 임시직 위주의 고용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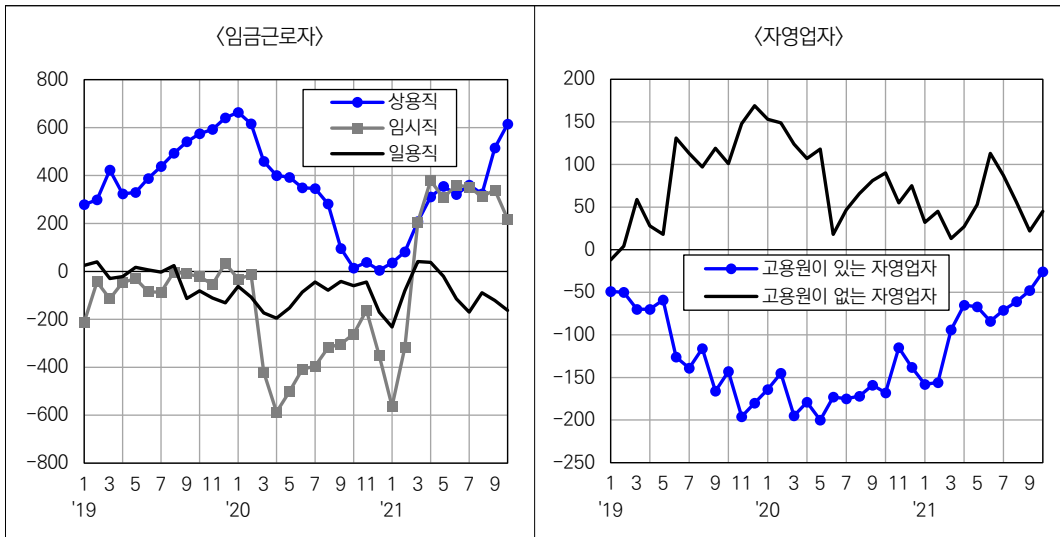
2020년에는 이례적 수준의 임시직 감소가 있었다. 대면서비스업 위주로 나타난 수요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임금근로자 중 상대적으로 고용조정이 용이한 임시직 고용이 줄어든 것이다. 임시직 고용은 2021년 1월 이후 빠르게 회복되었고 2021년 상반기 이후 코로나19 영향 이전 고용 수준을 회복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사회서비스업 임시직 고용이 크게 증가 중이며, 운수창고업 임시직도 꾸준히 증가했다. 일자리 사업 영향과 비대면서비스 수요 증가가 임시직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임시직은 지난해 감소분을 생각하면 여전히 부진하다.

2020년 하반기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었던 상용직 고용은 2021년 1분기부터 다시 증가폭을 늘려 3분기에는 코로나19 영향 이전 수준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폭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고용 침체는 상용직은 다소 시차가 있게 나타났으나 회복의 시기는 임시직과 큰 차이가 없었다. 양적인 증가와는 다르게 세부 내용은 임시직과 조금 달랐는데, 건설업에서 업황 회복과 함께 큰 규모로 상용직이 증가했다. 운수창고업은 임시직 증가 규모보다 더 큰 상용직 증가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대면 수요 증가로 인한 운송 관련직 증가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상용직 고용은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크게 증가 중이며, 사회서비스업 부문도 마찬가지다. 상용직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은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고용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3분기 들어 주춤한 모습이다. 전체적으로 상용직은 고용 증가 폭이 줄었던 것이지, 고용 자체가 감소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계절조정계열로 보아도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일용직은 2020년에 보인 부진을 회복하지 못하고 2021년에도 감소 중이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위주로 일용직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상용직과는 달리 건설업도 일용직 고용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업황 회복이 지속된다면, 건설업 일용직의 특성상 고용 수치가 자체가 크게 감소하는 일이 지속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면서비스업 일용직 고용의 감소 영향으로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수치는 매우 부진하다. 건설 일용직이 크게 증가하던 시기인 1분기에는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이후 크게 감소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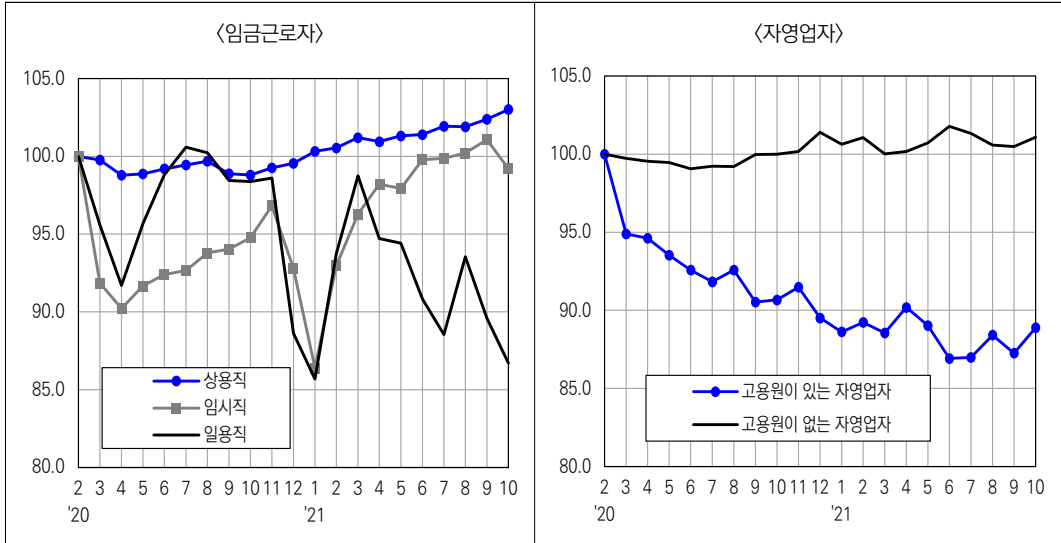
[그림 6]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추이(월계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7] 코로나19 확산 이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변화(계절조정계열)



주: 2020년 2월=100.
 자료: 통계청, KOSIS.

자영업자 고용 상황은 고용주(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상황이 대비된다. 자영업자 고용은 양호한 반면, 고용주 고용은 어떤 수치를 보아도 좋지 못하다. 금융위기 이후 장기로 봤을 때, 고용주는 증가와 감소를 일정기간을 두고 반복하는 패턴을 보였다. 그동안의 패턴을 반복했다면 2019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회복되는 양상이 나타났어야 하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주가 증가하는 반등 시기가 크게 늦춰졌다. 결과적으로 2019년 상반기 기부터 현재까지 고용주는 감소하고 있으며, 다만 그 폭은 2020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다. 도소매업을 제외하면 고용주 감소가 큰 폭으로 나타나는 산업은 없다. 상품소비의 온라인 화라는 큰 흐름에서 도소매업 고용주가 늘어날 계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면서비스업에서의 회복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 고용은 장기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경기 하강기에는 주로 감소폭이 줄거나 오히려 증가했다가 경기 회복기에 접어들면 감소폭이 늘거나 감소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존에는 이러한 양상을 주로 노동시장 내에서 자영업자가 거시경제 변화로 인한 고용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해 왔다. 코로나19 영향 시기라고 할 수 있는 2020년 2월 이후에도 자영업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시경제에 부정적 충격이 나타날 때의 자영업자 고용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풀이할 수 있다. 특히 운송관련 자영업자가 큰 규모로 늘었고 건설업 자영업자도 크게 늘었다. 3분기 들어 기타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가 크게 줄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증가했던 고용의 기저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4. 하반기 제조업 취업자 개선세 약화

2021년 산업별 고용은 대체로 상반기 흐름을 하반기(7~10월)에도 이어가는 모습이다. 공공일 자리와 관련 있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공공행정 취업자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고용 증가가 계속 이어졌고, 비대면서비스의 증가로 운수창고업도 취업자 증가가 지속되었다. 교육서비스업은 지난해 고용 감소분을 대부분 회복하여 9~10월 취업자(계절조정)는 코로나 확산 직전인 2월 수준을 웃돈다. 하지만 고용이 감소하던 업종에서 하반기에도 고용 감소세가 지속되는 모습도 보인다. 도소매, 예술·스포츠, 협회·단체·기타개인서비스업, 숙박음식업이 그 예다. 지난해 도소매업은 기존 취업자 감소 추세에 코로나19 확산 영향까지 직접적으로 받으면

〈표 5〉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원계열 전년동기(월)대비				계절조정 전기(월)대비				2020년
	1분기	2분기	3분기	10월	1분기	2분기	3분기	10월	2월 대비
농림어업	-3	3	23	20	46	-95	17	18	95.8
제조업	-28	6	-35	-13	69	-18	-53	5	97.3
건설업	34	137	91	52	2	52	16	-10	103.6
도소매업	-193	-161	-140	-113	-65	-2	-35	13	93.5
운수창고업	42	96	130	163	41	36	42	12	109.2
숙박음식업	-209	26	-4	22	-34	92	-34	-5	92.6
정보통신업	4	42	72	103	14	48	14	-1	109.4
금융보험업	14	32	21	15	30	15	-23	4	99.4
부동산업	-40	14	33	39	7	28	7	2	99.3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4	70	57	64	2	36	4	9	104.4
사업시설관리지원	25	74	62	19	-23	25	35	-18	105.2
공공행정	51	83	46	-33	-45	14	12	-9	100.9
교육서비스업	-42	43	59	108	22	34	18	1	100.9
보건사회복지	63	224	253	300	36	134	94	5	111.3
예술·스포츠	-44	-31	-35	-26	-10	12	-8	-9	89.2
협회·단체	-86	-43	-44	-57	-40	13	10	-17	92.0
가구내 고용활동	4	-7	-23	-22	-8	-7	-4	-3	93.3
전 체	-380	618	577	652	26	403	116	18	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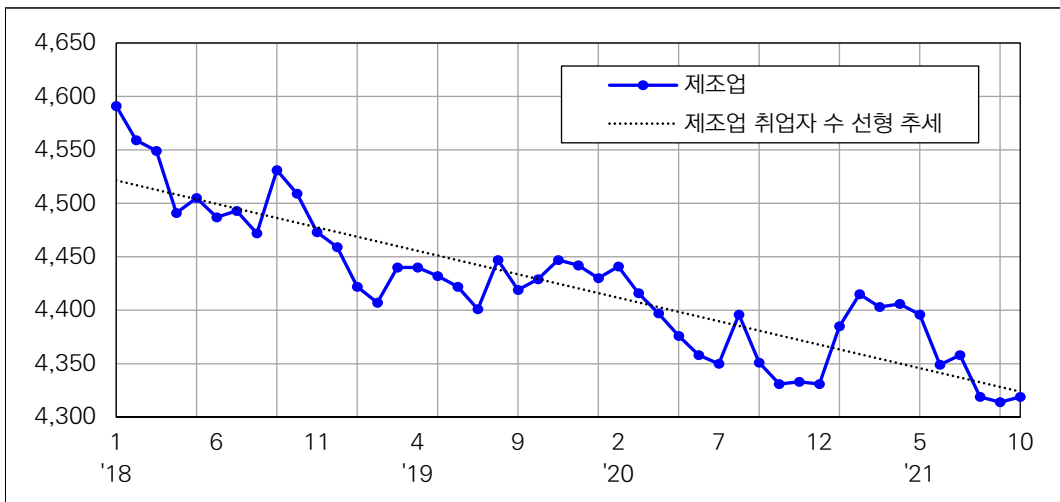
주: 2020년 2월 대비 10월 값은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2020년 2월=100일 때 2021년 10월 취업자 수준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서 고용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2021년 들어 경기와 민간소비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지만 도소매업 고용은 여전히 큰 폭의 감소를 지속하고 있다. 예술·스포츠, 협회·단체·기타개인서비스업도 고용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숙박음식업 고용도 여전히 부진하다. 숙박음식업은 최근 고용이 소폭 개선되었지만 회복세는 강하지 않아 하반기 내내 지난해 2월의 약 92%대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지난 몇 년간 취업자 감소 추세였던 제조업은 올 상반기 들어 경기회복과 업황 개선으로 고용이 개선되는 듯했으나 하반기 중 다시 취업자가 감소했다. [그림 8]의 제조업 계절조정계열 추이를 보면 상반기에 장기 추세를 웃돌던 제조업 취업자가 하반기에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 나타난다. 다만, 경찰 취업자 감소와는 달리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 수는 2021년에 증가를 지속했다(그림 9 참조). 올해 1월 증가로 전환된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0월까지 증가폭을 확대하며 1~10월 평균 5만 8천 명 증가(7~10월 평균 8만 7천 명 증가)했다. 사업체 종사자 수도 5월 증가로 전환된 이후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고용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사통계 간 차이의 영향도 있다. 경찰조사는 가구 단위, 사업체노동력조사와 고용보험통계는 사업체 단위의 조사다. 경찰조사의 취업자는 임금·비임금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고,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종사자 수는 임금근로자(특고 포함), 고용보험통계에서 피보험자는 상용직으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각 자료 간 조사기간, 조사대상, 포괄 범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고용 증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자료 간에 취업자 변동이 다르게 나타날 경우에는 고용 상황을 평가할 때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림 8] 제조업 계절조정계열 취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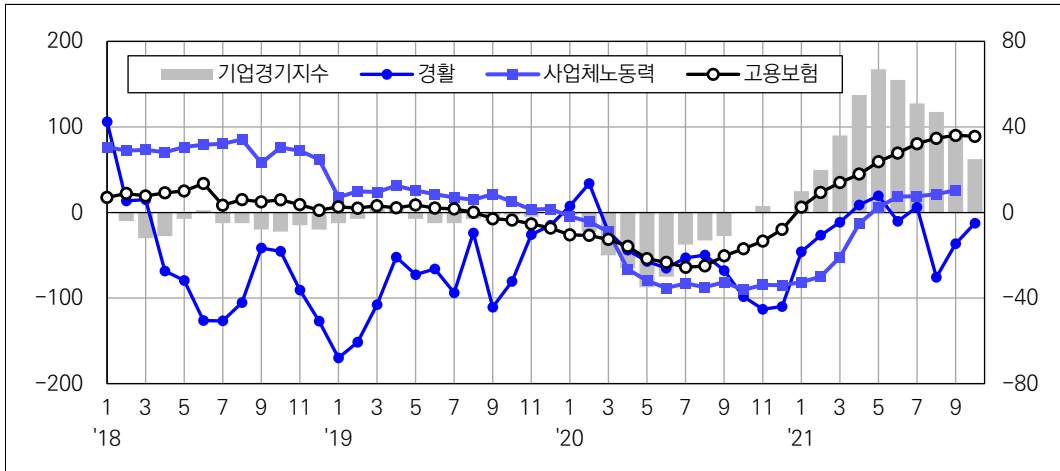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그림 9] 제조업 기업경기지수 증감 및 고용지표 증감 추이

(단위: p,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통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EIS;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ECOS.

세부 업종별로 보면 전기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고용이 증가세다. 전기장비 제조업은 일차전지 및 축전지, 가정용 기기를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하면서 고용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피보험자는 1~10월 평균 1만 5천 명 증가했고 사업체 종사자 수도 매일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생산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일 전년동월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율을 기록했다. 신규 제품 출시 등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반도체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갔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재택근무 등 비대면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컴퓨터 수출도 증가했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업황이 연중 호황인 가운데 고용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10월 평균 1만 2천 명 증가했고 사업체 종사자 수도 매일 증가폭을 확대하며 1~10월 평균 8천 명 증가했다. 경기회복으로 제조·건설 등 전방산업에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타기계 제조업 생산도 호조세를 지속했다. 주요국의 제조업 경기 회복으로 공작기계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세계 각국이 경기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면서 건설기계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특수산업용기계 등 대부분 기종의 기계수주가 증가하면서 올해 국내기계 수주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타기계 제조업 업황에 힘입어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사업체 종사자 수는 하반기 들어 증가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국내외 제조업과 건설경기 회복 추세가 당분간 유지된다면 내년에도 기타기계 제조업의 고용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겠다. 한편, 상반기 중 높은 생산 증가율을 기록했던 자동차 제조업은 7월 이후 국내 공장 설비 공사,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등으로 생산이 둔화되었다. 자동차 수출도 최근 들어 감소했다. 반도체 수급 차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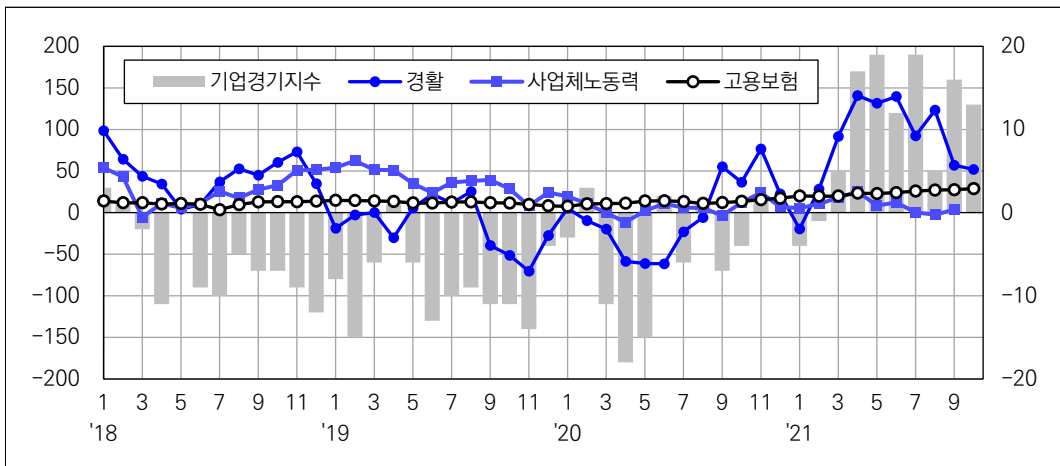
리스크에도 자동차 수출이 1월부터 8개월 연속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9~10월 중 반도체 수급 문제, 연휴, 생산라인 정비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소폭 감소로 전환됐다. 완성차 업체도 하반기에는 생산, 내수,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하면서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다. 하반기 자동차 제조업 업황이 10월까지의 고용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아 자동차 제조업 고용은 아직 상반기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7~10월 평균 1만 명 증가했고, 6월 증가로 전환한 사업체 종사자 수도 완만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자동차 생산과 수출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친다면 이후의 자동차 제조업 고용도 올 하반기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5. 건설업 고용 증가세 지속

2021년 건설업 고용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경찰 취업자는 지난해 8월 이후 증가폭이 확대된 기저영향으로 올해 9~10월 중 증가폭이 축소되었음에도 7~10월 평균 8만 1천 명 증가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하반기에도 매일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건설투자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토목부문 투자가 부진한 반면, 주거용·비주거용 건물 투자는 증가하고 있다.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는 민간 수주(11.8% 증가)와 공공 수주(18.0% 증가)가 모두 증가하면서 1~9월 전년동기대비 13.2% 증가했다. 앞으로 건설투자 부진까지 회복된다면 건설업 고용도 지금의 증가세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림 10] 건설업 기업경기지수 증감 및 고용지표 증감 추이

(단위: p,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통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EIS;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ECOS.

6. 서비스업 고용의 양적 회복

2021년 1~10월 평균 서비스업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22만 명 증가하였다. 2020년 1~10월에 18만 9천 명 감소한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취업자가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 3차 확산 시기가 반영된 2021년 1~2월을 제외하게 되면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서비스업 취업자가 평균적으로 45만 5천 명 증가하였다. 2021년 9~10월에는 약 60만 명의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가 나타나면서 2020년의 취업자 감소폭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확산 정도에 따라 취업자 감소가 민감하게 나타났던 2020년과 달리 2021년 7월 이후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2천 명을 웃도는 4차 확산 시기에도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에서 취업자

〈표 6〉 연령별·지위별·성별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업	정보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전문서비스 사업지원	공공행정 교육 보건복지	예술·여가 협회·단체 개인서비스 가구내고용
전 체		'20.11월~'21. 2월	-194	27	-268	-46	28	-134
		'21. 3월~'21. 6월	-162	90	12	207	337	-78
		'21. 7월~'21.10월	-134	138	3	244	362	-103
연령	15~64세	'20.11월~'21. 2월	-196	-10	-264	-74	14	-138
		'21. 3월~'21. 6월	-167	60	7	188	171	-91
		'21. 7월~'21.10월	-112	124	-13	223	258	-107
지위별	임금 근로자	'20.11월~'21. 2월	-103	-12	-235	-15	81	-139
		'21. 3월~'21. 6월	-93	53	-5	224	358	-50
		'21. 7월~'21.10월	-77	97	-28	270	376	-43
	자영업 자	'20.11월~'21. 2월	-91	39	-34	-31	-71	-126
		'21. 3월~'21. 6월	-70	37	18	-18	-37	-69
		'21. 7월~'21.10월	-57	42	31	-26	-42	-59
성별	남성	'20.11월~'21. 2월	-95	19	-100	-3	-1	-62
		'21. 3월~'21. 6월	-93	81	18	71	65	-24
		'21. 7월~'21.10월	-82	132	10	61	110	-32
	여성	'20.11월~'21. 2월	-99	8	-168	-43	29	-71
		'21. 3월~'21. 6월	-70	9	-6	136	272	-54
		'21. 7월~'21.10월	-52	6	-7	183	252	-7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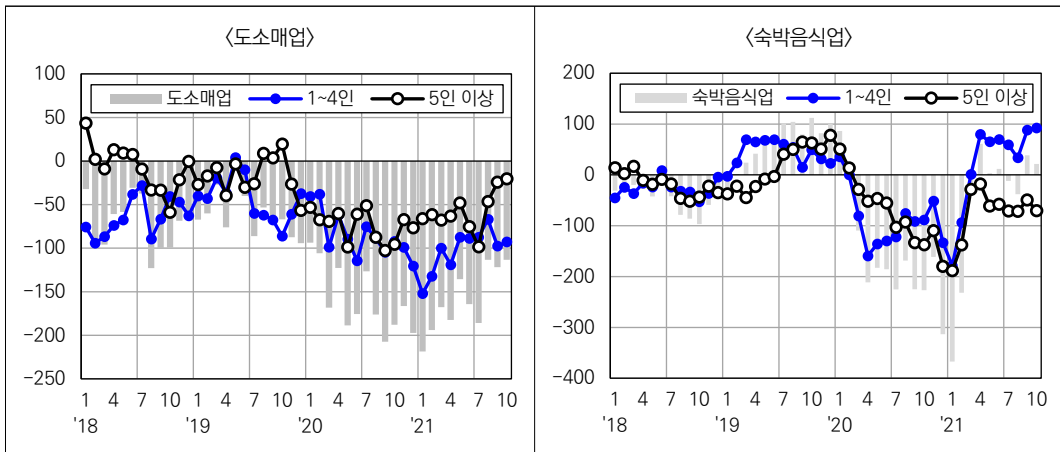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노동시장에 나타난 변화는 업종별로 크게 다르다.

먼저 서비스업 고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을 비교해 보았다. 도소매업의 경우 2021년 1~10월 평균 취업자는 16만 명 감소하여 전년도 감소폭(2020년 1~10월 15만 5천 명 감소)과 비슷한 수준이다. 종사자 규모별로 비교하면 모든 규모에서 취업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소매업에 가까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는 코로나19가 최초 확산되기 이전인 2019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도매업에 가까운 5인 이상의 사업체는 취업자 감소폭이 점차 둔화되고 고용이 회복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숙박음식업은 2021년 1~10월 평균 5만 4천 명 감소하였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취업자가 크게 감소했으나 3월 들어 6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회복하는 모습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듯했다. 그러나 2021년 4월 이후 취업자 증감을 반복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3~10월 사이 취업자가 월평균 7천 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숙박음식업의 고용 상황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종사자 규모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자리잡게 되면서 5인 미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소규모 음식점의 고용은 월평균 6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반면 상시적으로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중간규모 이상 음식점의 고용은 지난해에 이어 감소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업종 특성상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상황에 따라 영업에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고용을 늘리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향후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고 단계적으로 일상이 회복됨에 따라 중대형 음식점에서도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11] 종사자 규모별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업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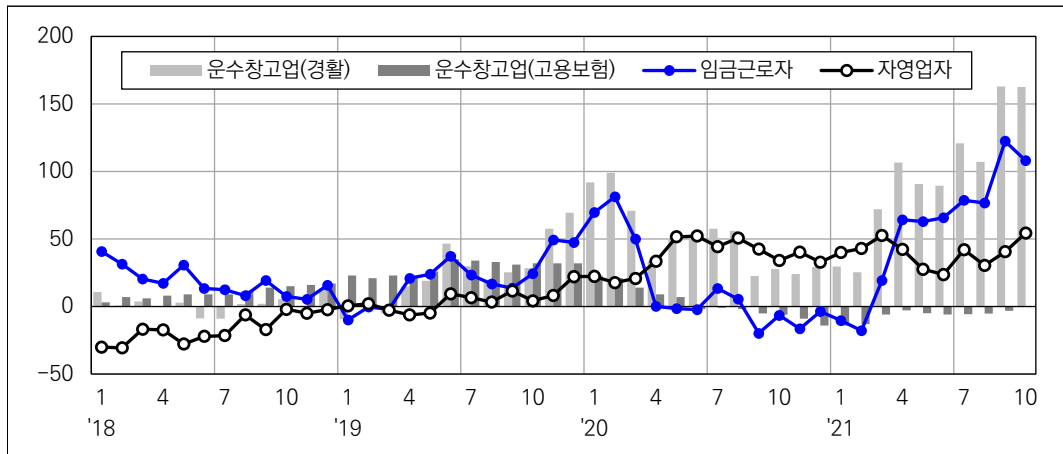
운수창고업은 서비스 업종 가운데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취업자 증가가 나타난 업종이다. 2019년까지 국내외 여행수요 및 해외직구 등의 운송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용차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배달노동자가 코로나19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월 4만~5만 명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이후에는 자영업보다 임금근로자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여행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비대면 소비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운송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임금근로자 위주로 증가했으나, 이러한 현상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제외한 자료에서 관찰되지 않고 있다.

고용보험통계 기준으로 운수창고업 피보험자는 경찰기준 임금근로자와 함께 증가하는 모습이 2019년에 나타났으나 코로나19가 최초 확산된 2020년 2월 이후 감소하고 있다. 종사상 지위가 임금근로자로 분류되는 취업자가 최근 1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현재의 불안정한 고용 증가가 2022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 어려운 이유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소비문화가 비대면에 익숙해졌으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운송수요와 고용사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일상의 회복과 함께 해외여행을 비롯한 잠재적 국외 여객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해외의 코로나19 방역 수준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물류대란과 고유가 현상이 운송업의 영업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림 12] 종사상 지위별 운수창고업의 취업자 및 피보험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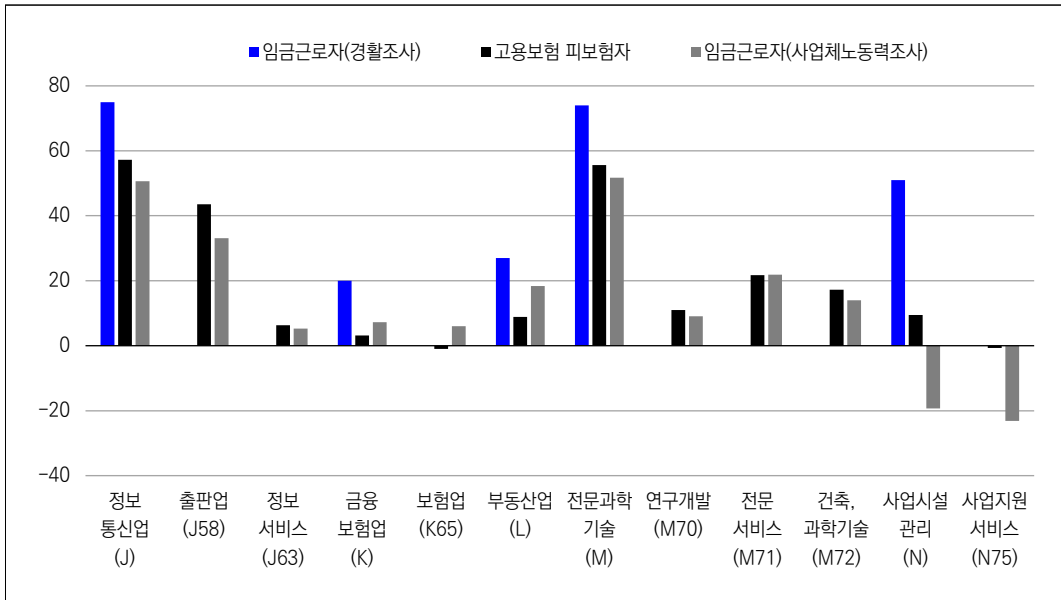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전문직 비중이 높은 비대면서비스 업종은 2021년 상반기보다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021년 3~6월 전문서비스 취업자는 평균 20만 7천 명 증가했는데, 7~10월에는 24만 4천 명 증가하였다. 취업자 증가폭의 상당부분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상반기의 고용 상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 취업자는 3~10월 평균 6만 명 증가하였고, 금융보험업은 2만 4천 명, 부동산업은 2만 1천 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6만 4천 명, 사업관리지원임대업은 5만 7천 명 증가하였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는 소폭 감소하고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는 모습이다. 임금근로자 증가폭을 고용보험 피보험자 데이터 및 사업체노동력조사와 비교한 결과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경찰조사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가 비슷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업관리지원임대업의 경우 임금근로자가 증가하는 것이 경찰조사에서 관찰되고 있으나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고용보험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금융보험업은 2만 4천 명의 취업자 증가폭 가운데 대부분이 50대(3만 7천 명), 임시직(2만 8천 명), 여성(2만 8천 명), 판매직종(2만 5천 명)에 해당하고 있어 업종의 영업 상황이 나빠지면 일자리를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업관리지원임대업은 청소 및 경비업무로 중고령층 이상이 고용되는 업종인데, 경찰조사에서는 5만 명 이상 증가한 것과 달리 사업체노동력조

[그림 13] 자료원별 비대면서비스업 임금근로자 증감(2021년 3~10월)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통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EIS;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ECOS.

사에서는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및 보건사회복지서비스(이하 사회서비스) 취업자가 2021년 3~10월 평균 35만 명 증가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업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주요 지원대상이었던 고령층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해 왔으나, 최근에는 15~64세 연령대의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3~6월 취업자 증가폭 33만 7천 명 중에서 15~64세는 17만 명이었으나, 7~10월에는 증가폭 36만 2천 명 중에 15~64세가 25만 8천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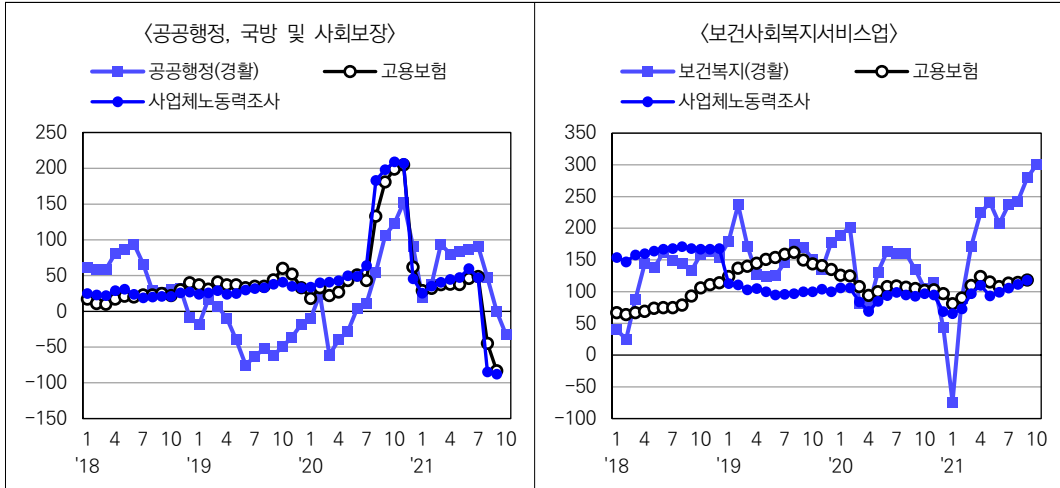
공공행정에서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월평균 8만 5천 명의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었으나 2021년 8월 들어 고용이 점차 둔화되고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다. 2020년 9월 이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실직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생계형 일자리를 지원하면서 취업자가 증가했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보험 및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도 기저효과로 인한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3~4개월간 공공행정 취업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서비스업은 2021년 3~10월 평균 5만 6천 명 증가하였다. 교육서비스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2020년 3월~2021년 2월까지 월평균 10만 명 감소하였고 일시휴직자가 크게 늘어났던 업종이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서비스업의 경기가 개선된 것보다 [그림 15]와 같이 취업자가 1년 증가하고 1년 감소하면서 기저효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의 특성을 감안해서 해석해야 한다. 취업자 증가폭 가운데 50대 연령대의 임시직 여성 취업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기간제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2019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10월 평균 교육서비스 임금근로자의 26.6%가 기간제로 일하고 있다. 교육통계서비스를 통해서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원 비율을 살펴보면 기간제교원의 비율이 2021년 12.4%로 최근 7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규교원은 2018년 44만 6천 명을 최대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비정규교원은 2018년 이후로 매년 3천~4천 명씩 증가하고 있다. 교육업무를 제외한 급식, 편의시설 등의 부문에서도 불안정한 고용이 이어지고 있어 경제위기 때마다 고용 상황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교육서비스업이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나아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공공행정과 마찬가지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취업자 증가폭의 대부분을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가하는 고령층이 차지하고 있었다. 2021년에도 3~10월 평균 20만~30만 명의 취업자 증가폭 가운데 60세 이상이 15만 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 들어 30~40대에서 돌봄 및 보건 관련 전문성을 가진 상용직 취업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0월 기준 보건사회복지 취업자는 30만 명 증가했으나,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15만 1천 명, 연령대별로는 30~40대가 10만 5천 명, 종사직종별로는 전문직이 8만 7천 명 증가하였다.

[그림 14] 자원원천별 공공행정 및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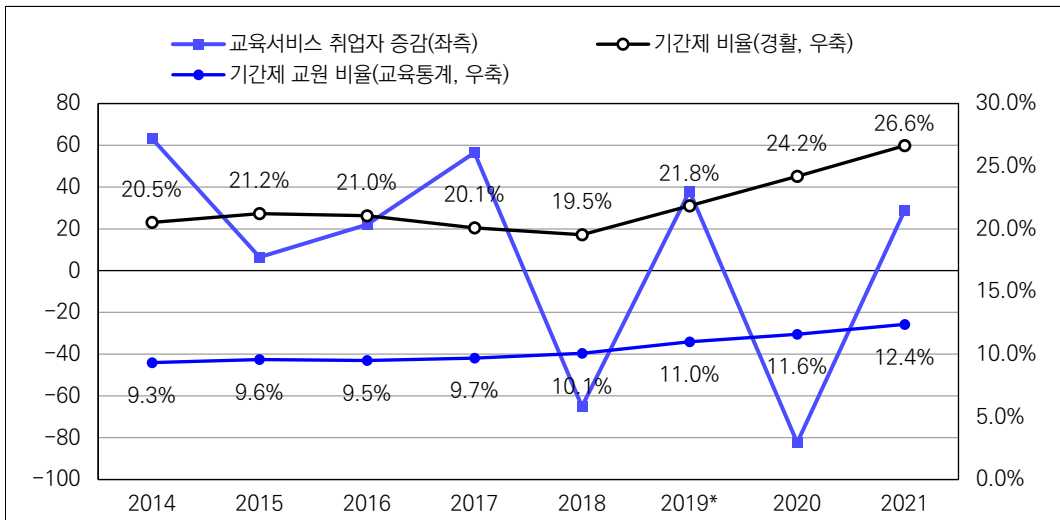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통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EIS;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ECOS.

[그림 15] 교육서비스 취업자 증감(1~10월 평균) 및 기간제 근로자, 교사 비율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



주 : * 2019년은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을 반영하여 병행조사하는 과정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초과관측되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마지막으로 음악공연, 연극, 프로스포츠 관람, 미용실, 목욕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영향을 크게 받는 예술·스포츠, 기타개인서비스업 그리고 가구내 고용 업종(산업분류상 R,S,T)

은 하반기에도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2021년 상반기(3~6월)에 취업자가 7만 8천 명 감소한 데 이어 하반기(7~10월)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방역이 강화되면서 취업자가 10만 명 이상 감소하였다. 그러나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고 단계적으로 일상이 회복됨에 따라 스포츠·예술·여가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기가 개선되고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Ⅲ. 2022년 고용 전망

2021년은 코로나19발 고용 충격으로부터 노동시장이 견조한 회복세를 보인 시기였다. 취업자 수가 증가로 돌아선 3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60만 명 내외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 취업자 감소분을 20만 명가량 상회하는 수준이다. 전월대비 계절조정계열로도 8개월 연속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고용 충격 발생 이전 고점인 2020년 2월에 대비해서는 99.9%까지 회복한 상황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복 양상에 있어 영역·계층별로 상이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은 경계해야 할 점이지만, 코로나19의 확산과 거시경제 상황에 있어 특이점이 발생치 않는다면, 금년 말까지도 고용 상황은 회복세가 이어져 2021년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352천 명 수준의 취업자 증가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대면서비스 중심의 민간소비 회복과 수출 및 설비·건설투자 증가를 토대로 한국경제는 2021년 4.0%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한 뒤, 2022년에는 내수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경제성장률이 3.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별로는 비대면서비스의 활황세 유지 속에 2021년 취업자 증가를 견인해 온 건설업 역시 수주 및 착공물량 증가,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업황 개선이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통제되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된다면 대면서비스업의 점진적 회복도 기대해 볼 만하다. 다만, 대내외적으로는 현재 차질을 빚고 있는 원자재 수급불균형과 글로벌 물류 차질이 지속되거나, 미중 간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등 하방 위험요인의 심화 여부에 따라 경제회복이 지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상기의 전망요소를 반영하여 추산한 본원의 2022년 고용 전망은 다음과 같다.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추세의 심화, 글로벌 경제 및 내수시장 위축 등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특이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2022년 취업자 수는 243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상·하반기 고용 상황은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데, 회복에 있어 상반기 약세, 하반기 강세를 보인 2021년의 기저영향으로 2022년 상반기에 367천 명, 하반기에는 119천 명 증가하는 상고하저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일별 신규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코로나19의 재유행 및 변이 발생이 고용

〈표 7〉 2022년 고용 전망

(단위: %, 천명)

	2021			2022p		
	상반기	하반기p	연간p	상반기	하반기	연간
취업자	26,918	27,595	27,256	27,285	27,714	27,500
(증가율)	0.4	2.2	1.3	1.4	0.4	0.9
(증감수)	119	585	352	367	119	243
실업률	4.5	3.1	3.8	4.3	3.1	3.7
고용률	59.8	61.1	60.5	60.2	61.0	60.6

주: p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상황에 미칠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수준이 감염병 발생 이전의 수준까지는 다다랐지만, 이전의 장기 회복 추세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내수 개선, 감염병 확산세 진정, 고용 회복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이 실효를 거두어 고용 회복 추세가 2022년에도 지속되길 기대해 본다. **KLI**

〈부표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천 명, %, %p, 전년동기대비, 전년대비)

		연도		1~10월			분기		
		2019	2020	2019. 1~10월	2020. 1~10월	2021. 1~10월	2021. 1분기	2021. 2분기	2021. 3분기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44,504	44,785	44,476	44,762	45,057	44,987	45,048	45,106
	(증감)	(322)	(281)	(317)	(286)	(295)	(296)	(296)	(294)
	취업자	27,123	26,904	27,081	26,909	27,218	26,369	27,467	27,645
	(증감)	(301)	(-218)	(276)	(-172)	(310)	(-380)	(618)	(577)
	(남성 증감)	(91)	(-82)	(79)	(-62)	(130)	(-145)	(259)	(228)
	(여성 증감)	(210)	(-137)	(197)	(-110)	(180)	(-235)	(359)	(349)
	고용률	60.9	60.1	60.9	60.1	60.4	58.6	61.0	61.3
	남성	70.7	69.8	70.6	69.8	69.9	68.5	70.4	70.6
	여성	51.6	50.7	51.5	50.7	51.2	49.1	51.9	52.2
	실업자	1,063	1,108	1,095	1,119	1,073	1,380	1,129	807
실업률	3.8	4.0	3.9	4.0	3.8	5.0	3.9	2.8	
남성	3.9	3.9	4.0	4.0	3.7	4.6	3.9	2.9	
여성	3.6	4.0	3.8	4.0	3.9	5.4	4.0	2.7	
비경제활동인구	16,318	16,773	16,300	16,734	16,766	17,239	16,452	16,655	
(증감)	(31)	(455)	(49)	(434)	(32)	(458)	(-225)	(-89)	
15~ 64세	생산가능인구	36,791	36,639	36,798	36,652	36,513	36,571	36,525	36,470
	(증감)	(-5)	(-153)	(-1)	(-146)	(-139)	(-142)	(-134)	(-140)
	고용률	66.8	65.9	66.7	65.9	66.3	64.9	66.7	67.1
	남성	75.7	74.8	75.6	74.8	74.8	73.8	75.4	75.5
	여성	57.8	56.7	57.7	56.7	56.7	55.8	57.9	58.4
취업자	24,585	24,130	24,560	24,142	24,225	23,749	24,367	24,465	
(증감)	(74)	(-455)	(59)	(-418)	(83)	(-521)	(316)	(34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부표 2〉 주요 산업별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임금근로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1분기	2분기	3분기	10월	1분기	2분기	3분기	10월	1분기	2분기	3분기	10월
제조업	33	24	33	-1	5	-33	-48	-75	3	-4	-11	-7
건설업	65	59	59	44	-4	-1	2	-1	-31	-72	-8	18
도소매업	67	46	1	-53	-107	-141	-82	-65	-23	2	3	7
운수업	66	-8	-6	-21	-1	2	-3	8	1	5	9	7
숙박음식	96	39	-17	-17	-48	-144	-127	-122	-60	-58	-25	-54
전문과학	22	18	-7	-9	-6	-6	0	8	-1	-5	-1	-2
사업서비스	76	48	76	80	-7	-27	-27	-38	-21	-16	-8	10
공공행정	-34	-10	15	16	17	-15	44	108	2	3	-2	0
교육	-25	11	16	15	16	-59	-92	-85	-6	-3	-10	-6
보건사회	85	69	59	16	63	46	85	103	5	6	4	-4
예술·여가	25	23	11	11	9	-14	-17	-27	8	9	-6	-12
협회·단체	26	-8	-15	-34	-61	-64	-44	-55	-7	-6	12	13
전 체	580	381	241	14	-155	-499	-338	-261	-114	-145	-54	-59

비임금 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1분기	2분기	3분기	10월	1분기	2분기	3분기	10월	1분기	2분기	3분기	10월
농림어업	3	0	-4	-17	58	47	23	27	36	18	-6	7
제조업	-31	-38	-35	-24	-3	4	13	15	0	-8	-8	-6
건설업	-38	-48	-27	-19	10	4	-14	-4	-10	-3	-3	0
도소매업	-44	-33	-25	-26	9	-9	-37	-20	-24	-27	-30	-31
운수업	-9	0	3	4	28	43	39	29	2	3	4	1
숙박음식	-6	-30	-35	-31	11	8	5	1	4	-8	-7	-5
전문과학	-3	-1	-6	-8	10	13	19	9	-2	-7	-7	-8
사업서비스	-7	-3	-4	-6	-2	1	5	14	1	0	1	1
교육	-14	-6	-11	-5	-3	-38	-18	-32	-3	-3	5	10
보건사회	2	2	3	-6	2	0	-1	-5	0	1	2	2
예술·여가	-8	-5	-3	-9	9	10	6	2	1	1	0	-1
협회·단체	-2	-5	-7	-7	23	7	31	52	-4	-6	-2	1
전 체	-168	-184	-169	-168	142	81	65	90	3	-41	-59	-37

주 : 정보통신,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등 일부 산업은 생략하였음.
 자료 : 통계청(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